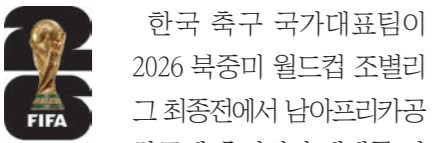


처참한 경기력... 32강 '자력 진출' 날렸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토너먼트 진출을 자력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경기 전 FIFA 랭킹 24위)은 25일(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남아공(60위)에 0-1로 졌다.

이로써 조별리그 1승 2패로 승점을 3에서 늘리지 못한 한국은 A조 3위로 마치며 32강 진출을 확정 짓지 못한 채 다른 조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말 그대로 '졸전'이었다. 경기 전 기준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36계단이 나 낮은 팀을 맞이해 이변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날 남아공과 비기니만 해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한국은 0-1로 졌던 19일 멕시코와의 2차전과 비교해 선발 명단에서 세 명의 변화를 줬다.

최전방 공격수를 손흥민(LAFC)에서 오현규(베식타시)로 바꿨고, 이재성(마인츠)이 섰던 왼쪽 측면에 황희찬(울버햄프턴)이 기용됐다. 윙백 한 자리가 김문환(대전)에서 체코와의 1차전 선발이었던 이태석(번)으로 돌아왔다.

특히 2014년 브라질 대회부터 월드컵에 참가하며 한 번도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한 적 없는 간판스타 손흥민을 교체 명단에 둔 것은 '결단'이었다.

월드컵을 앞두고 소속팀에서 득점 감각을 뽐냈고, 체코와의 1차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뽑아내며 존재감을 보인 오현규를 더 활용해보려는 선택이었다.

홍명보호는 경기 시작 10분 정도까진 주도권을 잡는 듯했으나 전반 15분 전후로 잔 실수가 이어지며 남아공에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객관적 전력에선 단연 한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조 최하위이면서도 32강 진출의 희망이 남은 남아공의 '기세'가 위협 요소로 지적됐다.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성이 보이던 분위기가 올라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프리카 특유의 기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였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두 번씩 한국 수비에 균열을 내며 자신감을 얻은 남아공은 전반 물 보충 휴식

홍명보호 패인 분석

랭킹 60위 팀에 이번의 희생양 상대 빠른 역습 허용 기 살려줘 손흥민 전반 벤치 앉힌 건 패착 원톱 오현규에 공 투입도 안 돼 '아프리카 징크스' 끝내 못 넘어

이후엔 더욱 거침없는 움직임으로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거듭 만들어냈다.

선수들의 역습 속도가 빨라졌고, 특유의 리듬감도 살아났다. 양쪽 풀백도 수시로 올라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한국을 괴롭혔다. 골키퍼 김승규(도쿄)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진작 실점할 상황도 있었다.

반면 한국은 오현규 쪽으로 공이 제대로 투입되는 상황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공격을 시작할 때 빠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거나 예리한 패스가 들어가 신속하게 전개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채 공격 시 선수 숫자가 대체로 부족했다.

결국 전반을 0-0으로 맞선 홍명보호는 후반전을 시작하며 황희찬을 손흥민으로, 이태석을 옌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로, 미드필더 백승호(버밍엄시티)는 김진규(전북)로 바꿨으나 남아공에 '해볼 만하다'는 희망을 준 대가는 결국 후반 18분 타펠로 마세코의 선제 결승골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계속 끌려다니며 후반 29분 오현규 대신 조규성(미트윌란)을 투입한 홍명보호는 '실시간 순위'에서 A조 2위가 돼 지키기만 해도 되는 남아공의 골문을 끝내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냈다.

FIFA 경기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남아공에 전체 슈팅 8(13)과 유효 슈팅 수(3-4) 모두 밀렸다.

클·사진·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경기 결과 및 순위 (25일 한국 시간 기준)

순위	승	무	패	득실	승점	순위	승	무	패	득실	승점	순위	승	무	패	득실	승점
1	1	0	0	3	3	2	1	1	1	-1	4	3	1	0	2	-1	3
2	1	0	0	6	3	3	0	1	2	-4	1	4	0	1	2	-4	1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실점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몬테레이=연합뉴스

탈락이나, 구사일생이냐... 홍명보호, 운명에 맡긴 32강 티켓

한국 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마치고도 갈 곳을 모르는 처지가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산뜻하게 대회를 시작했으나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패한 데 이어 남아공에도 일격을 당했다.

1승 2패(2득점 3실점)로 승점 3을 얻는데 그친 한국은 3전 전승(승점 9)을 거둔 멕시코와 1승 1무 1패의 남아공(승점 4)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아 자력으로

멕시코가 그나마 체코 잡아줘 2018 러 대회 때 입은 은혜 값이

는 32강 오를 수 없게 됐다.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는 네 팀씩 12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24개국에 조 3위 중 상위 8개국을 더해 32개국이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을 위해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마저도 멕시코 덕분에 가능했다. 한국이 남아공과 맞붙은 시간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멕시코가 체코에 승리(3-0)했기 때문에 조 3위로라도 32강 진출을 엿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눌러 1승 1무 1패가 됐다면 한국은 아예 조 4위로 내려앉아 곧바로 짐을 쌀 운명이었다. 멕시코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이 독일에 깜짝 승리(2-0)를 거두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8년 뒤 한국에 그 은혜를 갚은 모

한국, 12개 조 3위 중에 4번째 9개 조 3위 중 최소 세팀 앞서야

양재다. 이제 홍명보호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날까지 12개 조 3위 중 한국은 4번째다. 다만,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곳은 A-C, 3개 조다. 이 중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승 1무 1패)는 승점 4로 한국보다 위다.

하지만 승점이 같은 C조 3위 스코틀랜드(1승 2패 1득점 4실점)에는 골득실 차에서 한국이 앞선다. 이제 남은 9개 조 3위 중에서 최소 세팀에 우위를 점하면 32강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조별리그 최종전을 남겨둔 D-L 조에는 이미 승점 3을 거둔 팀도 네 팀이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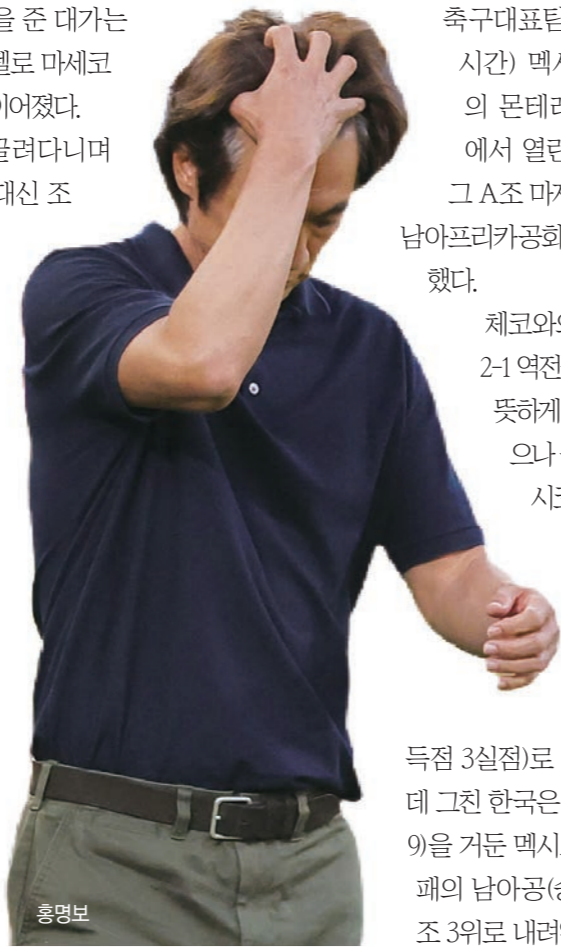
D조 파라과이, F조 스웨덴, J조 알제리, L조 크로아티아가 나란히 1승 1패로 승점 3을 쌓았다. G조 벨기에와 H조 코보베르데가 두루씩으로 승점 2를 얻어 뒤를 잇는다. 2연패로 아직 승점 1도 챙기지 못한 I조

세네갈조차 이라크와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조 3위로 32강 진출을 노려볼 수는 있다.

조 3위 팀 중 승점이 같을 땐 골득실차-다득점-페어플레이 점수-FIFA 랭킹 순으로 우열을 가린다. 한국은 32강에 오르더라도 조 3위라서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E조 1위가 확정된 독일 또는 7월 2일 미국 시애틀에서 G조(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1위와 맞붙어야 한다.

오늘의 월드컵
D조 > 튀르키예-미국(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
> 파라과이-호주(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이상 11시)
E조 > 퀴라소-코트디부아르(미국 필라델피아 스타디움)
> 에콰도르-독일(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이상 5시)
F조 > 일본-스웨덴(미국 밀러스 스타디움)
> 튀니지-네덜란드(미국 캔자스 시티 스타디움·이상 8시)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 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인 가계부채
● 위협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수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박정용 지음

그의 재능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혹독한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04 한국인의 자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06 가슴에 묻고 간 평생의 염원 통일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성전외환 발상, 중동 건설 진출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가상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02 정치세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싶었던 '성공한 노동자'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챙겼던 '근손'과 '구두쇠'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번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